

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년 연속 '우수상'

완도군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3천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우수 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수범 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 으뜸마을 75개소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읍 주도마을, 군외면 영흥마을, 신지면 금곡마을, 청산면 진산마을·청계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완도 주도마을'은 1960~70년대 수산물 수출이 호황을 이루던 시절 강아지도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던 과거 문화를 재조명하고, '군의 영흥마을'은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남파랑길 86코스에 주민 주도로 쉼터를 조성하고 청정 갯벌을 무료 개방했다.

'신지 금곡마을'은 태양광 야간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의 치안유지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산 진산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과거 기록물 전시, 슬로걷기축제와 연계한 청산도 관광 콘텐츠 개발, '청계마을'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범바위에 조형물 설치 및 귀농산 어촌마을과 연계한 화단 조성·도자기 문패 제작 등을 추진했다.

완도군은 천연자원 활용과 공모사업 연계,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은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나영 기자



완도군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3천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농식품 창업지원 매출증대·신규고용 효과

해남군이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제품 개발·생산을 지원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제품 홍보·판매, 영상 및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1개소씩 지금까지 33개소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연간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 무화과 생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금, 무화과청 상품화에 성공해 본격적인 가공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육가공 업체인 업업체의 경우 출시후 홍보부족으로 방치되었던 캠핑용 먹거리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재홍보하면서 판매율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 상품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접속자가 1천명이 넘는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윤보현 기자

고흥 바우처택시, 이동권 개선 효과 뚜렷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고흥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을 요청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고흥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 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바우처택시 13대를 도입, 운영을 시작했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월에 바우처택시를 21대로 늘려 운행 중이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해야 해서 정차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이동 수단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인 콜센터의 업무량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어려움과 장애인 콜센터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용자 분산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용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흥군 바우처택시 이용료는 전국 최초로 2km까지 기본요금 500원 적용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군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1천원으로서 교통약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최종민 기자

진도군,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운영

진도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통해 숨어있던 조상 땅과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K-Geo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395건 1천845필지의 토지를 본인 또는 후손에게 찾아주

었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진도군 소재 창씨개명 토지 862필지를 조사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158필지를 제외, 제적부를 직접 조사해 상속가능한 128필지의 상속자에게 소유권 정리를 안내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공

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조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사망신고 시, 상속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통합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전국 단위의 토지 조회가 가능하다.

/이재평 기자

보성군,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보성군은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배치도와 직원 배치도 및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청사 정문과 민원실 입구에 종합안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설치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돼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은 화면 터치로 손쉽게 각 부서의 좌석 배치와 담당자 사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서 출입구에 종이로 운영하던 직원 배치도도 키오스크로 변경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게 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서별 키오스크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후 종이 조직도를 교체·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강중수 기자

장흥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수료식 진행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2023년 꿈드림 수료식 '오늘만을 기다려'를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고등 검정고시를 합격한 청소년들과 김성 장흥군수, 왕윤재 장흥군의회장 등 유관기관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꿈드림 활동 영상 시청, 검정고시 합격증 전달, 장학증서 및 장학금, 바리스타 자격증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두연 기자

함평청지
HAMPYEONG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